

# HUFS

## Cover Story

HUFS Festival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의 여정

## Special Theme

HUFS, 대학 혁신의  
행보를 이어가다

## HUFS Topic

NIA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 총 121억 규모

## Inside HUFS

HUFS의 첨단 융합 전공,  
무엇이 다른가

# THE BEGINNING OF HUFS FESTIVAL CREATING A NEW NORMAL TOGETHER



#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17만 외대 동문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이 만나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Global HUFS 2022 SUMMER Vol. 115

### HUFS, 대학 혁신의 행보를 이어가다

####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HUFS Festival -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의 여정
- 04 **Special Theme** HUFS, 대학 혁신의 행보를 이어가다
- 06 **Theme Interview** 학교를 향한 마음으로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독일어 58
- 12 **HUFS Interview**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꿈꾸며 - HUFS AWARD 수상자\_국내 부문  
김덕술 유니스트리자산운용(주) 회장·일본어 81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높이 - HUFS AWARD 수상자\_해외 부문  
황한주 레바인 그룹 회장·스페인어 83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Forbes Korea(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20인' 선정  
이태규 두들린 대표이사·중국어통번역 14
- 18 **Inside HUFS** HUFS의 첨단 융합 전공, 무엇이 다른가  
김낙현 시교육원 원장·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주임교수 / 장주이 Language & AI 융합 전공·폴란드어 17
- 22 **Global Memoirs** 다시 주어진 글로벌의 기회 GTEP사업단 16기 이태연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20 / 이홍주 인도학 19
- 24 **I am HUFSan** 후배들을 향한 진심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행정지원처장
- 26 **Global Issues** 글로벌 공급 충격 강유덕 LT학부 교수

#### HUFS NEWS

- 30 **HUFS Topics** 개교 68주년 기념식 개최  
권순한(주)소이상사 회장, 학교 발전기금 2억원 기탁  
NIA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 총 121억 규모  
한국외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
- 34 **HUFS Today**
- 39 **HUFS Academies**
- 43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2 **HUFS Donation**

# HUFS Festival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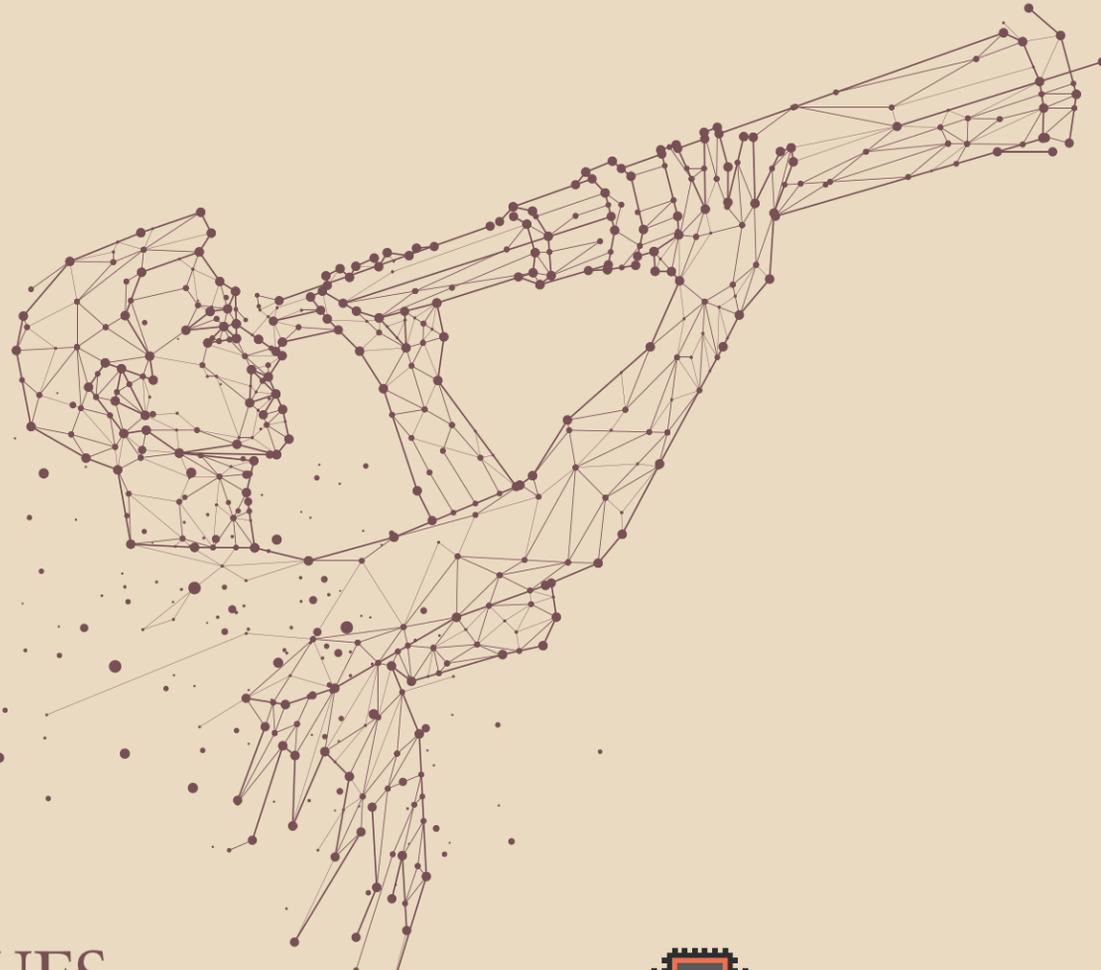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잠잠하던 캠퍼스가 지난 5월 봄 축제로 기지개를 켜다. 한국외대 봄 축제를 즐기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얼굴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바뀐 축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HUFS 캠퍼스 봄 축제는 글로벌캠퍼스에서 먼저 시작했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지난 5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2022 대동제 #Spring cooler'가 개최됐다.

이번 대동제에는 인기 가수 싸이의 불빨간사춘기, 보라미유, DJ CREW 등이 출연해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으며 백년관 잔디 구장을 젊음으로 물들였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총학생회, 단위별, 단과대별, 학과별 부스가 마련됐으며, 총장과의 화합 축구대회, 해무리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졌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흡스 칭춘 페스티벌, 총학생회 x FBS 기요제,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고, 19일에는 세계민속문화축전 공연 등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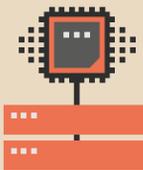
서울캠퍼스에서는 5월 26일(목)과 27일(금) 이틀 동안 봄 축제가 열렸다. 'Hang(行) Out: 어디라도, 언제라도'라는 모토를 내건 이번 축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대학 생활의 대면 행사가 전연 중단됐으나,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밝은 의지를 담았다. '어디라도, 언제라도'라는 모토를 살려 서울캠퍼스 내 월드빌리지(세계여행 콘셉트)와 다양한 동아리 부스(레트로-시간여행 콘셉트)를 운영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라도,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총 36개 동아리가 모두 참여해 동아리만의 특색을 살린 음식, 게임 부스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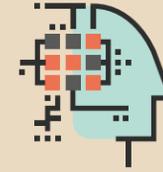
# HUFS, 대학 혁신의 행보를 이어가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외대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2년 연속 선정, NIA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 등 대학 혁신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 대학의 사업 및 교육 과정을 소개한다.



##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2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응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공학개론,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연어처리 외에 기초/심화 프로젝트, 기업 멘토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실습 등으로 운영된다.



## NIA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 한승희 특임강의교수와와의 협업을 통해,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2차) 10번 과제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25억)'를 추가 수주했다.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는 3,000시간의 한국어-영어, 한국어-다국어 통번역 훈련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대용량 코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데이터는 음성인식기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지식출판콘텐츠원과 데이터센터에서 보관해 우리 대학만의 음성 인식기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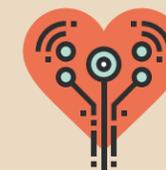
## SW중심대학사업단,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 개소식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은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를 개소했다.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는 스마트,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로서 최첨단 교육 장비를 갖춘 교육 시설로 구축됐다. 이번에 구축된 스튜디오를 통해 구현할 원격 강의 시스템은 교육과 각종 행사에 적합한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 최첨단 온라인 화상 강의가 가능하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의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고화질의 LED Modules & Display를 통해 학습 몰입도 강화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 우선협상자 선정

우리 대학은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전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연간 사업비 7억5천만원과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5년 동안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 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에 거점형 운영대학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인문계 및 글로벌 특화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직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 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사이언스, AI융합 등 첨단 융합전공 과정 신설

우리 대학은 융합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과 함께 AI(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데이터 과학, 바이오 공학 등에서의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 첨단 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했다. 언어학 또는 비즈니스와 융합된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와 통계학이 결합된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전공', 소프트웨어와 바이오메디컬 공학을 결합한 '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전공'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해 좀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대학원에 'AI 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독일어 58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의 모교 사랑은 유명하다.

2008년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을 설립해 지금까지 외대 발전기금으로 4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학교를 향한 마음 하나로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 학교를 향한 마음으로

###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문을 묶어주는 해외동문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은 우리 대학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이기 전에 기업가다. 처음에 직원 여섯으로 시작한 Allied Technology가 28년 후인 2014년에는 600명 이상의 전문, 기술 및 행정 직원이 근무하는 Consulting Firm으로 성장했다. 그후 2014년에 세계적인 기업과 합병해 그 기업의 일부가 됐다.

그는 우리 대학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으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박철 전 총장님의 권유와 워싱턴·뉴욕·L.A. 동문이 중심이 돼 2011년 7월 뉴욕에서 미주동문연합회가 창립됐습니다. 동문의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미주동문연합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제가 ‘내 희망은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동문을 묶어주는 해외동문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4월에 김인철 전 총장님의 뜨거운 성원과 권순한 전 총동문회장님의 막강한 추진력으로 제 꿈이 실현됐습니다. 2016년 창립 총회와 행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2차 해외동문연합회 총회와 행사가 가졌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등록금 못 냈던 과거, 비슷한 처지의 학생 도우려 시작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2008년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을 설립해 지금까지 외대 발전기금으로 40억원 이상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어릴 때부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모님 덕분이었다.

“저는 피난을 나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이 많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헌신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맨 처음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된 계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장과 '자랑스러운 외대인' 상,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1998년 외대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조규철 전 총장님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총장님을 환영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동문 중 한 분이 저를 ‘외대에 9번 등록했으나 졸업을 못 하고 미국에 왔고, 워싱턴 외대 동문회 회장을 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소개하면서 졸업장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총장님이 그걸 기억하고 제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고, 1999년에는 ‘자랑스러운 외대인’ 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크게 성공한 동문이 많은데, 제가 외대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병만 전 총장님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외대 졸업생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는 이후 항상 모교에 빛을 지고 사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것이 2008년에 Matthew and Katherine Lee Scholarship Fund를 시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 후 서울로 와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힘들었던 일과, 빛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은 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때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의논 끝에 2008년 Matthew and Katherine Lee Scholarship Fund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95명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수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저와 아내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 세계를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다

이덕선 이사장에게 한국외대 즉, 모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는 ‘항상 외대를 다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1958년에 입학했을 때 외대는 생긴 지 불과 5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면 안 되는 특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딘가 신선했고, 미래지향적이고 선구적인 외대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외대 동문이 있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중남미에서는 외대를 그곳의 ‘Harvard 대학교’라고 하고 외대 스페인어과를 ‘본과’라고 농담할 정도로, 우리 동문이 정착해서 흔한 말로 ‘딱 잡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외대를 나온 것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동문이라면 모교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는 한국외대가 어떤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지 궁금했다.

“‘외대비전2028’에 명시돼 있듯이, 외대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선도 대학이 되는 꿈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외대가 인류에 공헌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더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 희망합니다. 박정운 총장님의 뛰어난 지도력과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대가 ‘세계를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야 하겠습니다.”



**동문은 가능한 한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수님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먼저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 17만 외대 동문이 모교 발전에 동참해주기를

이덕선 이사장은 외대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과 교수, 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17만 외대 동문이 더욱더 큰 모교에 관한 관심과 애정으로 모교 발전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론 외대의 빛나는 발전은 교수님 한분 한분이 각자 맡은 전공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업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라 굳게 믿습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님이 있어야 하고, 좋은 학교에 좋은 교수님이 있어야 좋은 학생을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좋은 학생이 입학해야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요, 어느 것이 먼저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동문은 가능한 한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수님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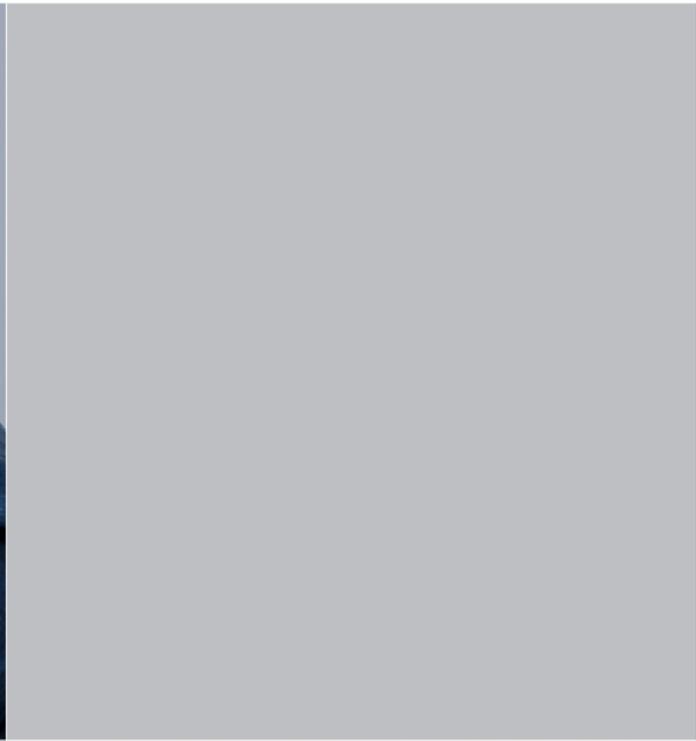
그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만 인류에 공헌할 수 있으며, 세계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풍부한 지식이나 뛰어난 재주·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이라고 했다.

인터뷰 말미,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관해 물었다.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현재 하는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Sovereign Order of Malta에 입회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overeign Order of Malta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봉사·희생의 정신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구호단체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노력해온 Order of Malta Korea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톨릭 CEO나 기업가로 구성된 평신도 국제기구인 Legatus 회원으로도 활동합니다. 앞으로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을 통해 계속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즐겁게, 웃으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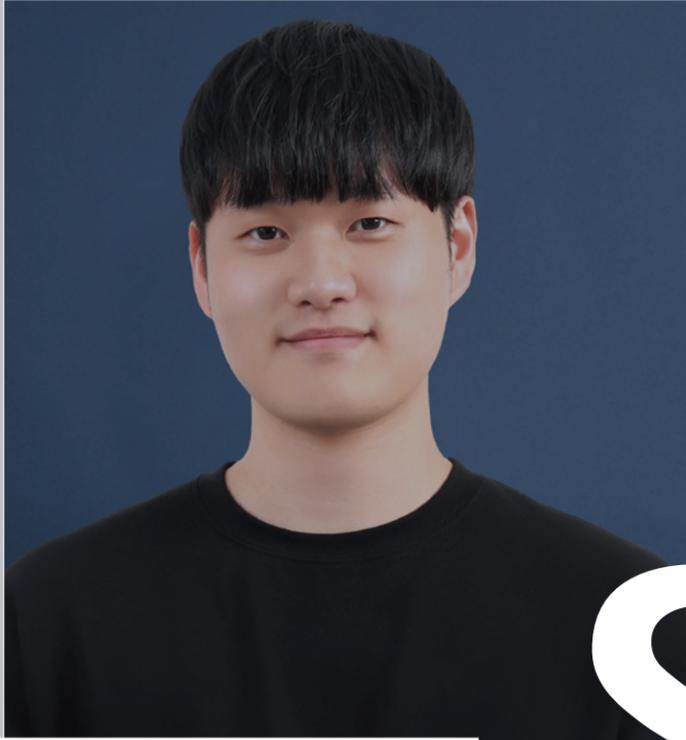


# HUFS INTERVIEW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꿈꾸며**  
**김덕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 일본어 81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높이**  
**황한주** 레바인 그룹 회장 · 스페인어 83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이태규** 두들린 대표이사 · 중국어통번역 14



F

S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김덕술 회장은 한국외대 개교 68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를 수상했다. 그는 34년간 맡아온 김 전문 업체 삼해상사(주)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최근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을 시작했다. 그가 전하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꿈꾸며

HUFS AWARD 수상자\_국내 부문  
김덕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 일본어 81

● 한국외대 개교 68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를 수상하셨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정말 영광이고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나름 열심히 살아온 제 삶을 모교에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더욱 뜻깊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좋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34년간 몸담았던 삼해상사(주)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는데요, 올해 4월 '수산인의 날'에 업계 발전과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모교에서 우등상을 받은 느낌이라 무척 기쁩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18년 삼해상사(주)의 상장 준비를 하다가 창업자이신 부친의 권유로 매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조업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다시 제조업을 할 수는 없었기에 대안으로 금융업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가 320여개나 있고 과당 경쟁 상태인데 반해 전문적으로 개인 고객의 자산을 상장 주식에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는 많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화된 지 40년 이상 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을 살펴봤을 때 고객자산가에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대표와 2019년 회사를 설립해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고객 210명의 자산 약 3100억원을 일임받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에서 고객 서비스와 관리 부문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 삼해상사(주)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김 산업의 선진화, 세계화, 대형화를 이끌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전문화입니다. 보통 회사가 성장한 뒤 불안하면 사업 다각화를 선택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김 제품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려워도 다른 부분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변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새로운 시장과 거래선을 찾는 결과 보통 8년 주기로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저는 영업사원에게 소비자를 바라보고 일하게 했습니다. 또 공장에서는 소품목 대량 생산을 원했지만, 저는 규모를 키워 다품목 대량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삼해상사(주)는 우리나라 김 원료의 11%를 구매했고, 수출의 16%를 담당했습니다. 1년 취급한 김을 한 줄로 세우면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 일본어학과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 시절 첫손에 꼽는 기억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겁니다. 아내와 같은 과 동기입니다. 입학 후 첫 수업 날 만난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얼떨결에 장모님께 인사를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마냥 즐겁고 꿈에 부푼 시절이었습니다.

●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길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 강원도 고성 의항로봉에서 시작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51구간, 즉 백두대간 일부를 걸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씩 강행군인 일정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경험 있는 선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구간 산행을 마치고 짐을 풀 때였습니다. 산에서 아무렇지 않게 앞서 잘 걷던 이들이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물집을 터트리더군요. 참 의아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랑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 하지만 너와 다른 건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야"라고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이겁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투르고 미흡하다는 점도 기억하고 용기 내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 포레는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인생의 두 번째 일을 시작하는 시기지요. 최근 시작한 일이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다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딘가, 또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저를 아는 제 주변인에게도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중남미에 진출해 코스타리카 기업인 레바인 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한주 회장이 한국외대 개교 68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를 수상해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기업인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한국외대의 명예를 높인 황한주 회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높이

HUFS AWARD 수상자\_해외 부문  
황한주 레바인 그룹 회장·스페인어 83



● 한국외대 개교 68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런 큰상을 부족하고 흠 많은 제게 주기로 뜻을 한데 모아주신 박정운 총장님, 임향옥 통번역대학원장님, 박미정 통번역대학원 부원장님, 한원덕 교수님, 윤경욱 부처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은 이와 반대로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가 도리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HUFS AWARD는 제가 학교에 기여한 것에 비해 더 큰 선물이 된 것 같아 모교에 빚을 진 느낌입니다. 이 상이 가족의 영광인 만큼, 가보로 대를 이어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레바인 그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레바인그룹은 부동산 및 건축업을 하는 코스타리카 기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영역을 호텔과 리조트 및 관광 분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 무역업으로 시작해 직물 수출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남미 시장에서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와 달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입니다. 이에 저는 해외에서 현지 언어, 문화, 풍습 그리고 현지인들의 사고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은 머리만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아는 것 즉, '지인(知人)'과 '지세(知世)'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잘 터득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잘 소통하고 설득해 내편으로 만드는 정도의 유창한 현지 언어를 구사하면 좋습니다.

● 과테말라 국립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해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민간 외교관을 자처해 오래 활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모교 재학 시절에 전공인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시나 소설 쓰는 연습을 했으니, 남달리 전공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겠지요. '현지 언어로 우리말을 가르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현지인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로 시, 노래 등 글을 쓰는 것을 보면,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한국어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스페인어과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대학 시절의 저는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말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안되는 스페인어로 스페인 문화관, 남산에 위치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사관의 관저 등을 찾아다니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칠레 대사관 소속 군인(Agregado militar)의 딸을 알게 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분과 만나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잘하려면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노력으로는 남이 하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전문가가 되길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갈 수 있는 곳은 다 여행하길 권합니다.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높이 가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세상 높고 넓은 곳에 가서 한국과 세상의 여러 나라를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견문을 넓혀야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느끼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이 사물과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생각도 역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야와 생각을 넓혀가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후배들이 기회와 시간은 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지속해서 성장·발전해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사회 집단이나 국가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해야 가치 있고, 성공한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한 평생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삶을 마무리할 때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할 것입니다.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학과 이태규 학생이 포브스코리아의 '2030 파워리더(IT-컨슈머 부문) 20인'에 선정됐다. 그가 지난 2020년 창업한 '두들린'은 기업용 채용 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대표 서비스 '그리팅(Greeting)'은 매달 전달 대비 2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인기다.

#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Forbes Korea(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20인' 선정

이태규 두들린 대표이사·중국어통번역 14

● 포브스코리아의 '2030 파워리더(IT-컨슈머 부문) 20인'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코리아의 IT-컨슈머 부문 파워리더는 IT업계 CEO와 관계자, 벤처캐피털 심사역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0명에게 추천받아 후보자에 오른 44명 중 중복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끄니다. 선정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창업 초창기부터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2030 파워리더 20인에 선정돼 무척 좋았습니다. 저희 팀이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팀 대표로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리더를 할 수 없고, 팀의 성과가 좋게 난 것은 저보다 팀 전체가 노력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 현재 이끌고 있는 '두들린'은 어떤 기업입니까?

두들린은 기업용 채용 관리 솔루션인 그리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팅은 현재 쏘카, 샌드박스네트워크, 아이디어스, 무신사 등 1,500곳이 넘는 다양한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들린 팀은 스타일쉐어, 마이리얼트립 등 200곳이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1위 초기 투자자인 '프라이머'로부터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퓨처플레이', '슈미트', '동훈인베스트먼트' 등에서 두 번째 투자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등에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알토스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53억원가량입니다.

● 두들린을 창업하고 그리팅을 만든 계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취업과 채용 문제를 소프트웨어(SW)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쓰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안타까웠고, IT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후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2021년 초에 인사 담당자들을 위한 SW인 그리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팅은 무엇이며, 성장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팅은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할 때 제출한 이력서를 평가하고, 면접 일정을 잡고, 합격 여부를 통보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돕는 SW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넓은 범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달 전달 대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 학교 공부를 하면서 창업과 관련해 신경 쓴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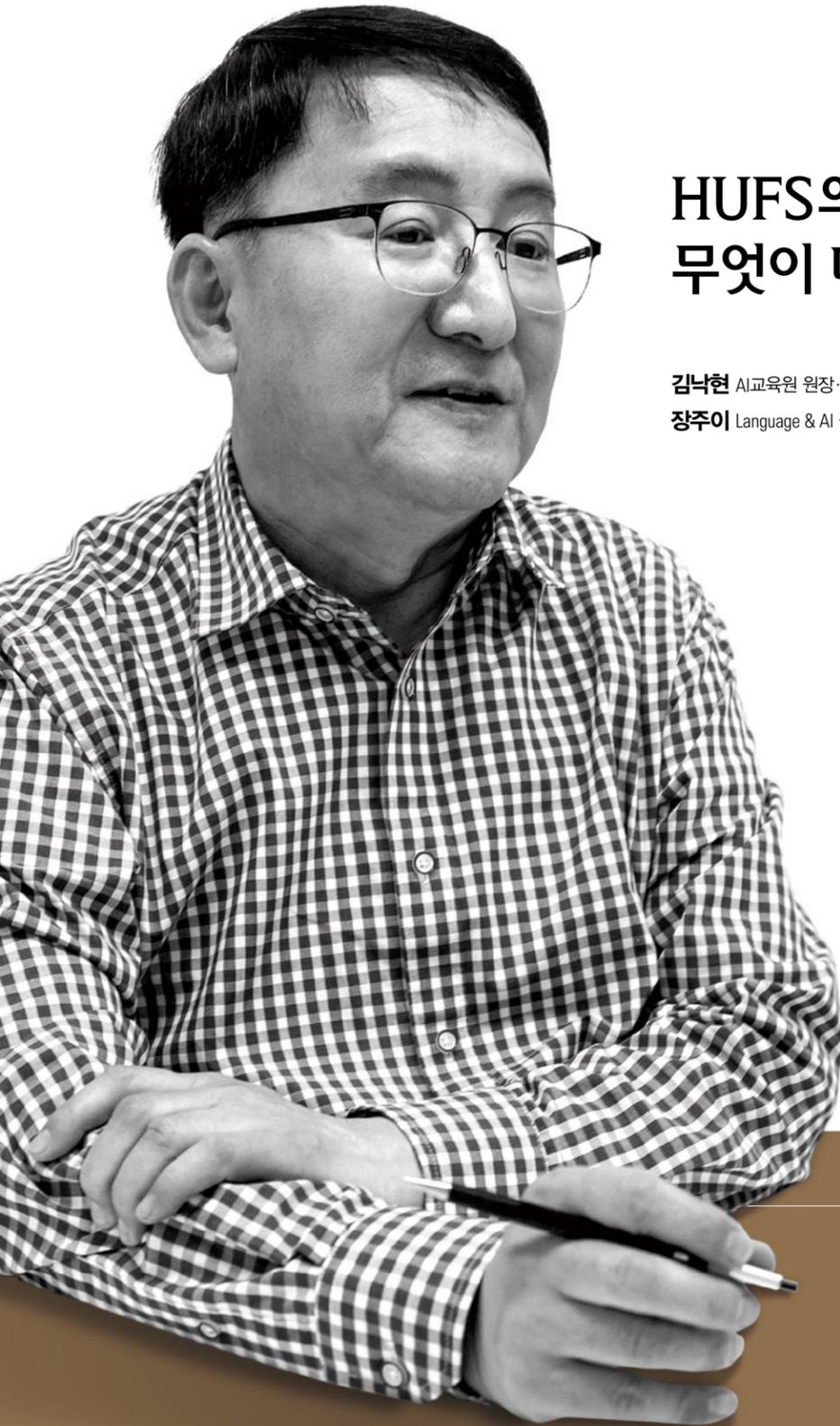
전국연합 프로그래밍 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이중 전공 제도를 통해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해 본격적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창업 동아리 '같이하실'의 대표로, 2019년에는 창업 동아리 '앵그리 아울즈'의 팀원으로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가 주관한 창업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창업부터 벤처기업 운영까지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창업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 제가 내린 결정이 옳지 않았던 적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풀어왔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그 답은 똑똑한 내부 구성원들과 이야기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앞으로 개발 예정인 서비스 및 벤처기업 인으로서 꿈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앞으로 저희는 취업·채용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팅의 글로벌 진출도 저희 목표 중의 하나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한국 SW를 만들어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인으로서의 꿈은 모든 사람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잘 성장해야 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 HUFS의 첨단 융합 전공, 무엇이 다른가

김낙현 AI교육원 원장·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주임교수

장주이 Language & AI 융합 전공·폴란드어 17

김낙현 AI교육원 원장·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주임교수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함께 언어·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대가 AI(인공지능)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시행하며, 소프트웨어 융합, 언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김낙현 AI교육원 원장과 장주이 Language & AI 융합 전공(이하 Lang. & AI 전공) 학생이 HUFS 첨단 융합 전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언어학 또는 비즈니스와 융합된 소프트웨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대학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낙현 AI교육원 원장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우리 대학은 외국어와 인문 계열 전공자가 많아서 다양한 이중전공자를 배출하는 융복합 교육을 강조합니다. 융합 전공과 관련해 우리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시행하며, 소프트웨어 융합, 언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많이 시행하지만, 언어학 또는 비즈니스와 융합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우리 대학의 독창적인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언어공학과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언어와 공학’ 융합 전공은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같은 자연어 처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분야에서는 경영 데이터 처리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다룹니다. 우리 대학은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본 지식 외에도 자연어 처리, 비즈니스 데이터 분야의 지식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 융합 전공과 다른 우리 대학 융합 전공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김낙현 원장은 언어학 또는 비즈니스와 융합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대학은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이외에도 언어학 또는 비즈니스와 융합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통계학이 결합된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전공’, 소프트웨어와 바이오메디컬 공학을 결합한 ‘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전공’도 선보입니다. 데이터사이언스 융합 전공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이외에 데이터 과학, 바이오 공학 등에서의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글로벌 융합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 융합 교육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인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매우 높은 편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 4학년생인 장주이 학생은 현재 Lang. & AI 전공을 통해 기계 번역과 텍스트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장주이 학생이 융합 전공을 하면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다.

“이중 전공을 막 신청했을 때는 본 전공인 폴란드어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ang. & AI 전공에서 공부하며 기존 전공에서 익힌 것과 새롭게 배우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이 합쳐져 시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내 AI교육원에서 주최해 진행된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외부 교육기관 ‘코드트리’와 연계한 코딩테스트 대비 교육 과정에 참여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하계·동계 방학과 학기 중 현장실습이 개설돼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업 수와 직군의 다양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학생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지고, 웹에서 데이터, 언어처리에 이르기까지 선택지의 체계화가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장주이 학생은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 대부분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 위해 컴퓨터공학부로 이중 전공을 신청하기에는 기존 전공생과의 경쟁 등 부담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융합 전공에서는 문과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실습 등의 기회를 통해 융합 전공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 큼니다.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을 들으며 AI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직군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많고, 문과에서 시작해 AI 관련 대학원으로 진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Lang & AI 전공을 통해, 본 전공인 폴란드어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폴란드어 기계 번역 검수 및 설계 관련 일을 하기 위해 회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 전공을 통해 특수 전략 언어와 프로그래밍 기술을 함께 갖춘 사람이 되려는 것에 크게 만족합니다.”

## 인턴십과 산학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 참여 당부

앞으로 우리 대학의 융합 전공이 어떤 목표 아래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김낙현 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융합 전공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산업체 인턴십 등 산학 교육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 전공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산업체 인턴십과 프로젝트 등 산학 교육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산학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추고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융합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에서는 융합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역량과 함께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데이터 과학, 바이오 공학 등에서의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좀더 전문적인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려 올해 대학원에 ‘AI 융합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해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비즈니스 데이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강의 교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정규 교과목 외에 인턴십과 산학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전공이나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취업에 연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수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어 학생들의 융합 전공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학점 인정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 인턴십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학점이 낮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게 다른 대학 수준의 학점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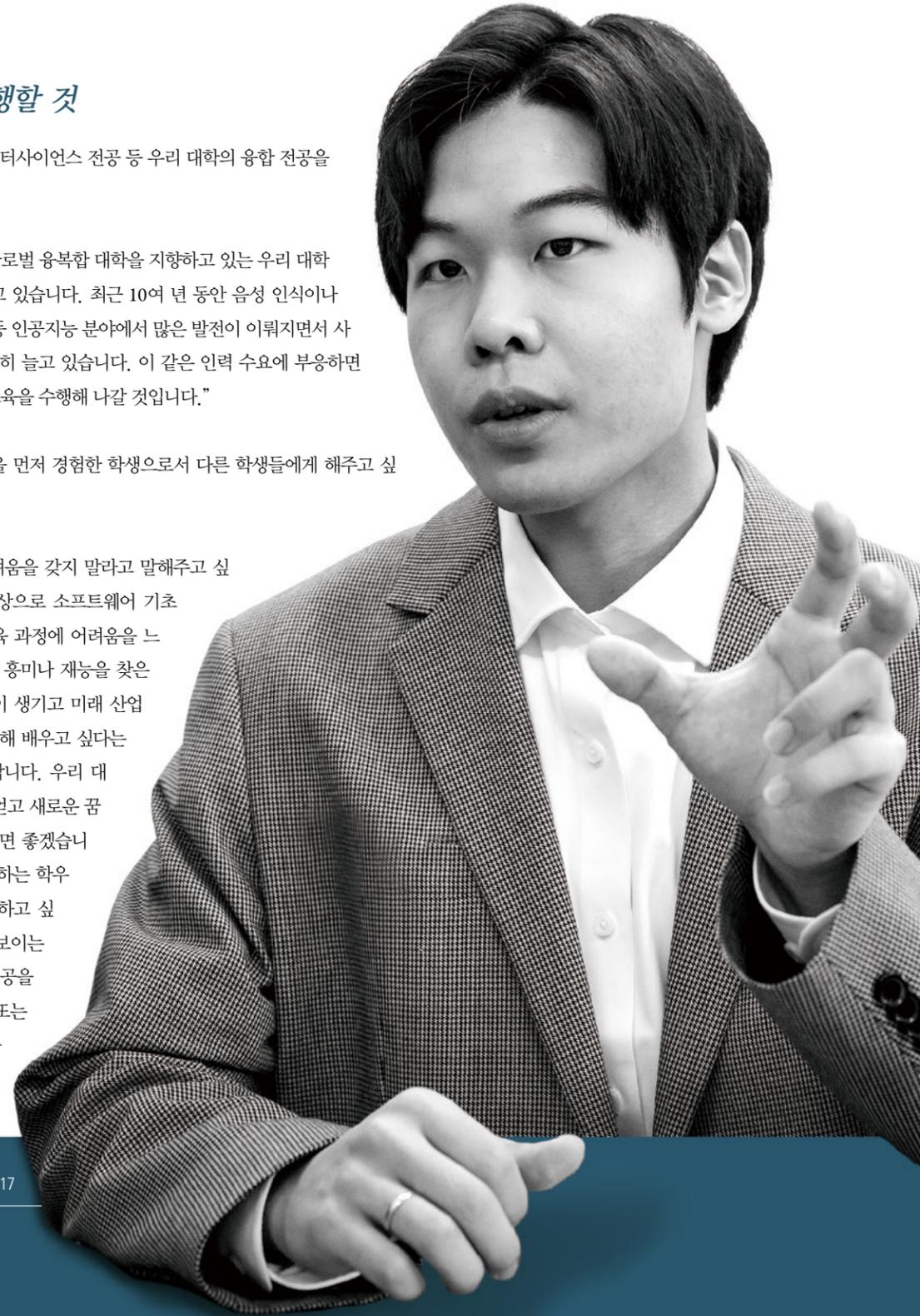
## 학생들이 만족하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수행할 것

김낙현 원장은 AI교육원 및 바이오데이터사이언스 전공 등 우리 대학의 융합 전공을 이끌어가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융합 교육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음성 인식이나 기계 번역, 영상 인식, 차량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지면서 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주이 학생은 우리 대학의 융합 전공을 먼저 경험한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융합 전공에 발 들이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교육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상치 못했던 흥미나 재능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고 미래 산업의 주축인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융합 전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를 좀더 많은 학생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어문 계열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우라면 특별히 ‘Lang. & AI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어문학과 인공지능 분야지만, 융합 전공을 통해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번역가’ 또는 ‘언어학적 지식을 갖춘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주이 Language & AI 융합 전공·폴란드어 17

“융합 전공에서는 문과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실습 등을 통해 융합 전공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 큼니다.”

# 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한국외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나코 그리말디 포럼에서 열린 'AMWC 2022 MONACO(Aesthetic & Anti-Aging Medicine World Congress)'에 참가해 해외 무대 진출의 열정을 보여줬다. 이번 국제 전시회에 참가한 이태연·이홍주 학생이 참가 후기를 들려주었다.

## 다시 주어진 글로벌의 기회

GTEP사업단 16기

이태연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20

이홍주 인도학 19

### 올해 가장 잘한 일은 GTEP사업단 지원

AMWC 2022 MONACO는 세계 최고의 미용 및 안티에이징 전시회다. 우리 대학 GTEP사업단은 '그레이트힐메디칼', '마이더마'와 협약을 맺고 전시회에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이홍주 학생은 재도전을 통해 GTEP사업단 16기로 활동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 GTEP에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15기로 활동하지 못했고, 다시 도전한 끝에 GTEP 16기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재 HUFS GTEP 1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해외 영업 직무를 준비하는 제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GTEP뿐이라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주로 언어와 문화, 국제 통상법에 대해 배웁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추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태연 학생은 GTEP사업단에 지원한 걸 올해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GTEP에 관한 좋은 말을 익히 들었지만, 무역과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이 없어서 더 준비한 후 4학년 때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다 지원 가능한 마지막 날 마음을 바꿨는데, 그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이 됐다. 현재 홍보팀장을 맡고 있다.

“대학교는 주어진 전공 외에 내가 배울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선택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2학년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후 첫 도전을 GTEP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GTEP은 대학생으로서 무역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 중 단연컨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무역 실무 경험

이번 전시회 참가는 두 학생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태연 학생은 ‘전시회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제가 이전에 경험한 전시회는 캠페어였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주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매자가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갖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매자의 호기심과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보다 이 제품이 향후 의학 업계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지,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어떤 점을 개선 또는 향상시켰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영어로 통역을 진행하면서 평소 잘 쓰지 않던 미용 및 의학 핵심 용어를 빠르게 익힐 수 있었던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홍주 학생은 전시 마케팅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3일 동안 매일 8시간 정도씩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사람이 많은 부스와 적은 부스의 전시자나 제품 디스플레이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바이어를 보면서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시장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바이어를 직접 만나고 제품 소개 및 판매를 하면서, 국제무역사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운 개념을 사용하고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무역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무역인’이라는 포괄적인 직무에 대해 회의감이 있었는데, 해외 영업의 매력에 매료됐습니다. 추후 개인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수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지나고 보니 아쉬운 몇몇 기억들

우리 대학 GTEP사업단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미용 산업 중에서도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것이었다. 전시회에서 GTEP사업단은 주로 부스 설치와 제품 세팅, 설명, 판매, 대표와 바이어 사이의 통역 등을 담당했다.

이홍주 학생은 리프팅 실을 제조하는 업체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했다. 리프팅 실 제품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제품 설명을 요청했을 때 실리프팅의 원료부터 시작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설명할 생각을 하니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B2B 박람회인 만큼 부스에 방문하는 바이어 대부분이 디스트리뷰터나 닥터로, 보다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부스가 구석에 위치해 많은 바이어의 시선을 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부스 근처에 컨퍼런스 홀이 있어서 지나가는 바이어에게 먼저 ‘How are you?’ 하고 물으며 부스로 유도하거나, 제품을 눈에 잘 띄게 진열하는 등 다양한 전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위치적인 한계로 인해 더 많은 바이어가 부스에 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태연 학생도 이번 활동을 하는 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3월 중순에 참가했던 국내 전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부스 배치에 따른 경쟁사 분석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미용·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최신 유행 제품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 비슷한 제품군의 부스가 몰려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변 부스의 동향과 바이어 이동 동선을 파악해 전시 마케팅 전략을 유동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과 상황별 적절한 대응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후배들을 향한 진심

한국외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가 학교 측에 1억원의 장학금 및 1천만원의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건립기금을 약정해 관심을 모았다. 장학금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김봉철 처장에게서 후배와 제자를 향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 행정지원처장



모든 것은 보고 배운 것으로부터

김봉철 교수는 지난해부터 매 학기 수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측에 1억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김봉철 교수에게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고 배운 것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제 기부는 모두 스승의 행적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승인 고(故) 김동훈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님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6540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할 무렵에도 모교와 제자를 위한 장학금 기부를 멈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김봉철 교수는 김동훈 교수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스승이지만, 마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선배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다.

“김동훈 교수님은 인품이 정말 뛰어났고, 재밌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로 있던 연극반 학생들의 뒤풀이 자리 등 학생들 모임이 있으면 조용히 와서 밥값을 내주고 갔습니다. 제가 런던으로 유학 갔을 때 교수님과 손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가끔 편지 봉투에 ‘밥 사 먹으라’고 1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돌돌 말아 넣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잔정이 아주 많았죠. 또한 교수님은 ‘내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후배와 제자에게 잘하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내리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모교와 후배 사랑

김봉철 교수는 김동훈 교수의 스승인 이균성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훈 교수의 기부 역시 스승인 이균성 명예교수에게 배운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균성 명예교수님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외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측에 모두 178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말로만 모교와 제자를 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균성 명예교수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제게 이균성 교수님은 강의실에서는 엄격하고 무섭지만, 사석에서는 엉뚱하고 잔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별다른 취미가 없던 교수님은 학생들과 영화관에서 오락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자들 여럿을 데리고 종로까지 나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자장면 등 밥을 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봉철 교수가 장학금 기부를 공식적으로 약정한 데는 친구이자 동료인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임소라 교수의 영향이 컸다.

“모교 교수가 된 이후에 도서관 건립기금이나 발전기금 등으로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임소라 교수가 1억원을 약정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외대 교수로서는 처음 있는 1억원 약정일 겁니다. 솔직히 1억원은 큰돈이지만,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 작정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 I am

김봉철 교수의 스승인 김동훈 교수와 이균성 명예교수는 20여 년 넘게 장학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장학금 외에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돈도 꽤 될 것이라.

“김동훈 교수님과 이균성 명예교수님이 기부한 장학금 액수가 물가 때문에 얼핏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큰 금액입니다. 수십 년 전에 1, 2천만원은 정말 큰돈이었으니까요. 두 스승님은 공식적인 장학금 외에도 ‘밥은 먹었냐’라면서 학생들의 손에 돈을 자주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 스승님들의 따뜻한 행적을 닮고 싶어 저도 제자들에게 밥을 자주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님들의 따뜻함이 제게, 또 저의 제자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교와 제자를 위한 장학금 기부는 이균성 교수에서 김동훈 교수로, 또 김봉철 교수로 ‘교수 3대’를 이어 전해지며 계속되고 있다. 대를 이은 장학금 기부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았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고, 후에 ‘교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졸업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운 좋게 한 번에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모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스승님과 동료가 됐다라는 사실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두 스승님이 했던 많은 것들을 닮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 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두 스승을 닮고 싶은 마음이 주는 특별함

# HUFSan

동문과 학생들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김봉철 교수는 장학금 기부 1억원 약정에 이어, 얼마 전에는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건립기금 1천만원 약정에 서명했다. 행정지원처장이기도 한 그는 글로벌캠퍼스의 도서관 건립이 하루빨리 이뤄질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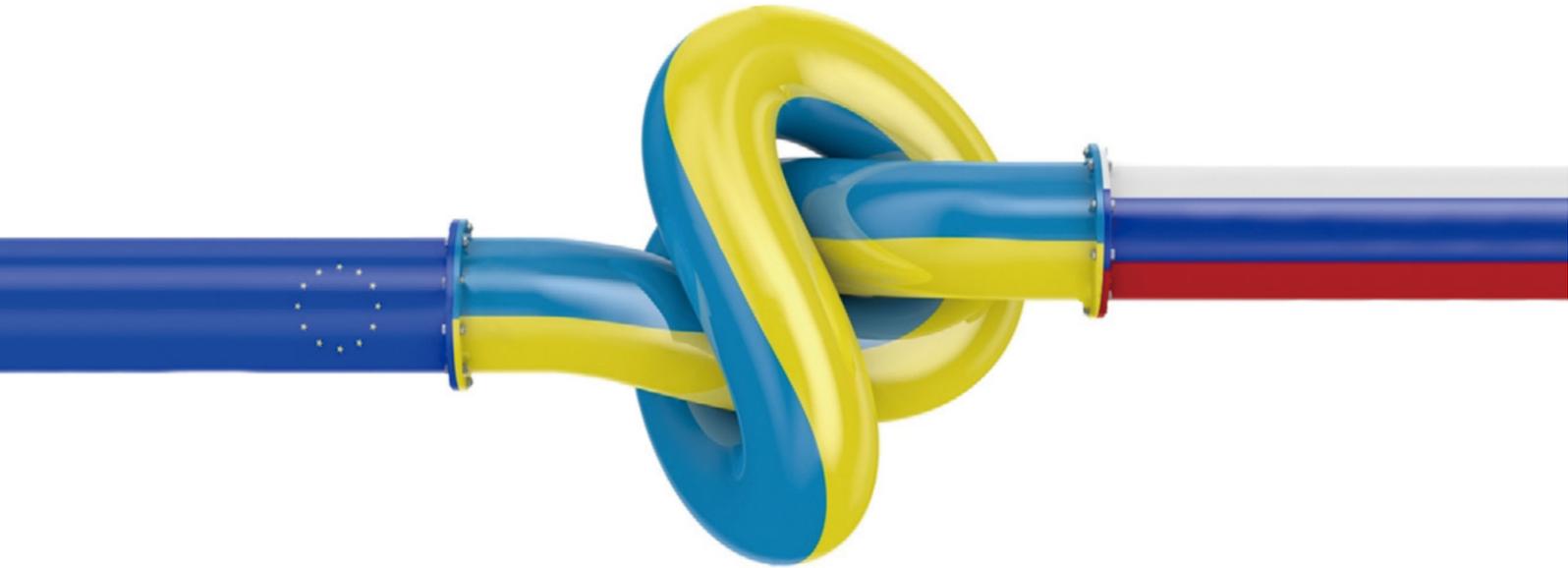
“저는 외대 동문과 재학생들이 전 세계에 이런 따뜻함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의 국제사회에 이런 따뜻함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말미, 김봉철 처장은 학생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수업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강의실에서 배운 것만이 나를 채워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강의실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 충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영토적 확장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실시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단합을 강화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NATO가 지속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포섭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특수한 안보의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 새로운 냉전체제의 서막, 세계화의 전격적인 후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냉전체제의 서막으로 간주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제재를 발표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세계화의 전격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사태로 분열 조짐을 보인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했다.

우선,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8%를 상회했고, 한국도 5%를 넘어섰다. 2021년 초 배럴당 47달러였던 유가는 120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이며,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가 41%, 석유가 27%이며, 석탄은 47%에 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중단계획을 발표했다. 즉 러시아에서 생산된 막대한 에너지가 판로를 잃게 된 반면, 유럽의 수요는 다른 생산국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고물가 현상 발생 및 식량 가격 상승

식량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이미 2021년부터 곡물 가격은 불안했다. 팬데믹 여파로 일부 해운 물류가 마비되고, 주요 생산 지역의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곡물 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곡창지대이다. 양국이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밀 27%, 보리 23%, 해바라기유 53%이다. 곡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물가 추세는 수요 과잉이 아닌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급 충격은 어떠한 여파를 낳을 것인가? 첫째, 적어도 1~2년간은 고물가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충격을 국민경제 전체가 몸으로 받아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다.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구조 상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고 고갈, 환율 급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의 연쇄 불안은 선진국의 경제상황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공급 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계속되자, 많은 국가들은 대안으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렸다. 또한 에너지 수입국을 다원화하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즉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수입원을 다원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원자재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 한국, 공급 부족 장기화 대비한 다양한 준비 필요

현재의 공급 충격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우선, 선진국들은 에너지와 공급망에 관한 경제안보 해결에 더 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번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정치·군사적 갈등에 의해 촉발됐지만,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당장 유럽은 서둘러서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은 미국, 중동과 같은 에너지 수출국과 동아시아와 같은 수입국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 조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는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돼 환경 관련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식량 가격의 급등은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에 발생한 중동지역의 민중봉기, '아랍의 봄' 사건의 도화선은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민생불안이었다. 다시 말해 축적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부조리가 치솟는 물가에 의해 폭발한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곡물 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따른 2차 충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장을 하락은 물론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재정, 무역, 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세한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IT학부 교수

# H

# U



##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 F

# S

## 개교 68주년 기념식 개최

우리 대학은 4월 19(화)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봉철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김종철 이사장과 박정운 총장의 기념사,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 동원교육상 및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 교원과 직원 포상 순으로 이어졌다. HUFS AWARDS 시상에서는 국내 부문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해외 부문 황한주(스페인어 83) 레바인 그룹 회장이 수상했다. 2022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김덕술 회장은 우리 대학 일본어과 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모교 사랑과 동문 단합에 헌신했다. 황한주 회장은 중남미에 진출한 뒤 다양한 분야의 회사를 성장시켰으며, 17년간 한국어 강의를 해 대한민국과 한국외대의 위상을 중남미에 떨쳤다.



## 권순한 (주)소이상사 회장, 학교 발전기금 2억원 기탁

지난 3월 28일(월) 권순한(스페인어 63) (주)소이상사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우리 대학 28, 29, 30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학교 사랑에 앞장서온 권순한 회장이 우리 대학의 도약과 발전을 염원하며 다시금 나눔의 뜻을 전한 것이다. 권순한 회장은 1983년 (주)소이상사를 설립해 방사선·의료기기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 무역회사로 성장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한국수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권순한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한국외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더 많은 동문의 모교 사랑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써 권순한 회장의 총 기부액은 13억원이다.



## NIA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주 총 121억 규모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고운성)은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2차) 10번 과제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25억)'를 수주했다. 이로써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총 121억원(1차 기준 96억, 2차 신규 2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한 값진 성과를 거뒀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은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 한승희 특임강의교수(통번역대학원)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 한승희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식출판콘텐츠원과의 협력을 통해 쌓은 사업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보람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시간의 한국어-영어, 한국어-다국어 통·번역 훈련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대용량 코퍼스 구축 사업이다.



## 한국외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학선, 이하 '로스쿨')은 지난 4월 20일(수)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발표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5위(로스쿨 11기 응시자 기준)에 올랐다. 우리 대학 로스쿨은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11기 응시자 42명 중 3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 83.33%를 기록하며 전국 5위를 차지했다. 11기 합격자는 2019년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으로, 11기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 지표를 통해 로스쿨의 실제 교육 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한국외대 로스쿨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방증했다.





**‘청우당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총동문회(회장 양인집)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는 3월 3일(목) 어니컴(주) 사옥에서 ‘청우당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앞서 1월 10일(월) 양인집 33대 총동문회장이 경영하는 어니컴(주)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000만원을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로 출연 및 약정했다. 2022년 청우당 장학생 함지훈(베트남어 19) 학생은 베트남 해외연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학부, 2022학년도 1학기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는 3월 7일(월) ‘2022학년도 1학기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국제학부 김지윤(18학번), 송예진(18학번)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와 이승래 교수가 참석했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의 1억원 약정기부금으로 조성돼 매 학기 국제학부 학생을 위해 지급된다.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피켓 시위, 대사 초청 간담회 및 특별토론회**  
우리 대학 우크라이나어과(학과장 홍석우)는 3월 7일(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의 피켓 시위, 대사 초청 간담회 및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어과 학생회는 민주주의와 영토 보전, 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인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평화 정착을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드미트로 포도마렌코 대사는 한국외대 구성원들이 보여준 열성적인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아랍어통번역학과, 우정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학과장 김수완)는 3월 3일(목) ‘아랍어통번역학과 우정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아랍어통번역학과 우정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유진(18학번), 김민수(20학번) 학생에게 수여됐다. 수여식에는 김수완 아랍어통번역학과 학과장, 최진영 융합인재대학 학장, 황운산 아랍어통번역학과 총동문회 회장, 선태규 제43대 아랍어통번역학과 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2-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3월 14일(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김봉철 이사장은 2022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교육과 연구 및 대학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박정운 총장, 윤성수 교무처장이 함께 자리했다.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주한 이란 대사관 공동 ‘제12회 이란문화제’ 개최**  
우리 대학 페르시아어·이란학과(학과장 유달승)는 3월 21일(월) 이란의 새해이자 봄의 시작인 ‘노루즈(Nowruz)’를 맞아 주한 이란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2회 이란문화제’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한국이란협회가 후원한 ‘제12회 이란문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문화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란 노루즈 상차림을 비롯한 이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 미국 대사대리, 한국외대 방문**  
3월 25일(금) 오전 11시 크리스토퍼 델 코스(Christopher DEL CORSO)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본교 방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ANNA DUPONT 교환 담당 외교관과 차소연 코디네이터, 우리 대학은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과 윌리엄 스튜어트(국제교류처 국제입학관리팀)가 배석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교육부 창업유망팀 300 선정 등 창업 우수 사례 인증**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의 SW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오칠팔구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창업도전형에 최종 선정됐다. SW중심대학사업단의 SW 창업 프로그램은 매 학기 SW 창업과 일반 창업을 모집해 실무 중심 특강,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을 정신 배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랍어과, 주한 오만 대사관 초청 아랍 문화 체험의 날 진행**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김동환)는 3월 24일(목) 주한 오만 대사관 초청 아랍 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주한 오만 자카리아 알사디 대사는 아랍어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만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오만 지역 나아가 아랍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랍어과 학과장 김동환 교수는 “아랍 음식을 맛보는 등 학생들이 아랍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국제금융학과, 2022학년도 APEX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금융학과(학과장 김용식)는 3월 29일(화) ‘2022년도 국제금융학과 APEX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APEX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제금융학과 안성욱(18학번) 외 7명의 학생이 받았다. 수여식에는 백재승 국제경영학과장, 박기봉 경성대학 부학장 및 장은갑 국제금융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장학금은 물류전문기업 ‘아펙스(APEX)’ 창업자이자 대표인 국제금융학과 장은갑 겸임교수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제16기 발대식**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사업단’)이 3월 30일(수) 제16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2학년도 사업단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사업은 대학생들의 무역 실무, 산학 협력 현장 실습, 전자상거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해외 마케팅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춘 무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주한 터키 대사관 공동 ‘터키 국가 부르기 경연 대회’ 시상식**  
우리 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학과장 오종진)는 4월 1일(금) 주한 터키 대사관 교육참사관실과 공동으로 ‘터키 국가 부르기 경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터키 국가 채택 10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를 기념하고,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생들의 터키 국가와 그 작곡가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에 대한 이해 및 터키에 대한 애정을 고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 우선협상자 선정**

우리 대학은 4월 4일(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전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연간 사업비 7억 5천만원과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의 사업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린 인문계 및 글로벌 특화 거점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직무 맞춤형 인재를 육성시킬 예정이다.



**마리아 다 아순셀 앙골라 카톨릭대학교 총장, 한국외대 방문**

4월 13일(수) 마리아 다 아순셀(Dr. Sister Maria da Assuncao) 앙골라 카톨릭대학교 총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양 대학간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본교를 방문한 외빈에는 Jose Sebastiao Manuel 앙골라 카톨릭대학 국제교류실장과 Rodrigo de Sousa 주한 앙골라 대사관 참사관, 우리 대학은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김장호 국제교류처장, 권기수 포르투갈어과 교수 등이 배석했다.



**SW중심대학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 개소식**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김낙현·AI교육원장)은 4월 14일(목) 글로벌캠퍼스에서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 개소식을 열었다. 온라인교육 플랫폼 스튜디오는 스마트,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로 최첨단 교육 장비를 갖춘 교육 시설이다. 이 스튜디오를 통해 구현할 원격 강의 시스템은 교육과 각종 행사에 적합한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 최첨단 온라인 화상 강의가 가능하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의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 한국외대 방문**

4월 7일(목)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 세르비아 신임 대사와 미르코 쿠즈마노비치(Mirko Kuzmanovic) 영사가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다. 주한 세르비아 대사 일행은 강기훈 부총장, 김용덕 학장(동유럽학대학)을 예방하고, 양국 대학간 문화 및 학생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 김철민 교수(학과장)와 김상현 교수, 두산카 부요비치(Dusanka Vujovic) 교수가 동석했다.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2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이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특히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어처리 기반 딥러닝기술 융합 과정’으로 알려졌다.



**아랍어과, 두바이 세계 박람회 감사장 수여**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김동환)는 4월 29일(금)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코레일유통(주) 본사를 방문해 감사장을 받았다. 아랍어과 유혜원·이재현·하승권(이상 17학번), 태나영(18학번) 학생은 지난해 10월 1일(금)부터 올해 3월 31일(목)까지 6개월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2020, Dubai, UAE)’에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한 한국관의 한국 상품 팝업스토어에 근무하며 제품 홍보와 판매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동시통역 제공**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원장 임향옥)은 5월 10일(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총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제공되는 동시통역을 담당할 통번역대학원은 명실상부 국내 제1의 통·번역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영어 이주연 교수와 김현정 통역사, 중국어 김진아·황지연 교수, 일본어 김한식·박미정 교수, 러시아어 방교영·박인나 교수, 프랑스어 편혜원 교수와 김효탁 통역사, 아랍어 관순례·조정민 교수가 참여했다.



**AI교육원, 2022 스마트 캠퍼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우리 대학 AI교육원(원장 김낙현)은 5월 6일(금)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서 정보지원처(처장 이윤석)와 공동으로 2022 스마트 캠퍼스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고, 공모전 본선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3월 28일(월)부터 4월 30일(토)까지 한 달여 동안 참가 학생들이 팀을 꾸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결과 총 54개 팀 중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대상은 ‘맞춤 장학 서비스’를 제안한 ‘홍익인간’ 팀이 선정돼 총장 상과 부상 1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

5월 11일(수)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청농(靑農)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 장학금은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남·여학생 1명씩을 선발해 500만원씩 총 일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강성룡 변호사, 강혜연 님, 강효영 변호사 등 3남매가 참석했다. 제2회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생은 김주민(ELLT 21), 이다빈(네덜란드어 20) 학생이 선발됐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기업 탐방 및 취업 멘토링 진행**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처장 오세홍)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5월 10일(화) K-뷰티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진로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로 구성된 기업탐방단이 아모레퍼시픽(이하 ‘AP’) 본사를 방문해 기업 탐방 및 김승환 대표이사, 이해용 인재선발팀장과의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 3부에서는 이해용 인재선발팀장으로부터 AP 내부의 인재 선발 기준과 관점, 지원자에게 필요한 스토리, AP가 선호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들었다.



**체자르 아르메아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 방문**

5월 12일(목) 체자르 아르메아누(Cezar Armeanu) 주한 루마니아 대사와 클라우디우 쿠쿠(Claudiu Cucu) 영사가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루마니아 대사 일행은 명수당에 위치한 루마니아어과 20주년 기념비(외대의 무한기둥)를 참관한 후,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양국 대학간 문화와 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루마니아어과 학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 어문관 로비에서 루마니아 민속공예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했다.



**‘총장과의 대화’**

우리 대학은 5월 11일(수)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과 이민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교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열린 공간을 통해 직접 묻고 답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성적 평가 방식, 등록금 부담 완화, 취·창업 지원 확대,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내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포르투갈어과,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 기념 주한 포르투갈 대사 초청 신입생 환영 행사**  
우리 대학 포르투갈어과(학과장 임소라)는 5월 5일(목)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을 맞이해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관저에서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수자나 바스 파투 주한 포르투갈 대사는 포르투갈을 비롯해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4개 대륙에 걸쳐 2억 6천 5백만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2 The Argus Prize 시상식**  
우리 대학 영자신문사 The Argus(디아거스)가 주최한 The Argus Prize: English Essay Contest 2022 시상식이 5월 20일(금) 열렸다. The Argus Prize는 1980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32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된 국내 대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다. 심사 결과 영미문학문화학과 Georgiana Mihaela Moga 학생의 'How Convenience Can Lead Us to a Dangerous Path'가 1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탈리아어과,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학과장 최병진)는 5월 13일(금) 2022학년도 1학기 이탈리아어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전 성철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대현(17학번), 김민지(20학번), 성현진(19학번), 한가은(21학번) 학생, 이탈리아어과 창립 50주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예원(20학번), 김지용(21학번) 학생에게 학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이탈리아어과 박관수 동문회장과 전성철 동문, 김시홍 교수, 최병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외대,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 공동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우리 대학 도서관(관장 조희문)과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원장 오종진)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터키 대사관과 터키항공, 터키 국영 통신사가 후원하는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이 5월 24일(화) 스마트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전에는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지난 3월 18일(금) 공식 개통된 차나칼레 대교 사진까지, 50여 점의 사진을 터키 국영 통신사 아나톨리아로부터 전달받아 전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어과,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학과장 임소라)는 5월 6일(금) 최동성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장, 정재민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 부회장, 임소라 포르투갈어과 학과장 및 이승용 교수, 권기수 교수, 포르투갈어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학년도 1학기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가영(18학번), 여찬우(21학번) 학생이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외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유형 1)'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1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9년 연속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고교교육 내실화, 수험생의 입시 부담 완화 등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3년(2+1) 단위로 개편된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고교교육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3월 정기 콜로кви엄(2차) '특파원이 본 시진핑의 중국'**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3월 31일(목) '특파원이 본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주제로 3월 제2차 정기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유상철 소장(중앙일보 중국연구소)은 십여 년에 걸친 중국 특파원의 경험에 비춰 현 중국 지도층의 국내외 정세 인식을 소개하고, 향후 시진핑 정부가 추구할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최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안 설명회' 참가**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5월 17일(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초청으로 동 대사관 주최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안 설명회'에 참가했다. 이번 설명회는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6월 5일(일) 실시될 국민 투표를 앞두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측에서 국내 학계 및 언론계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다. 우리 대학에서는 사업단을 대표해 이광태 HK연구교수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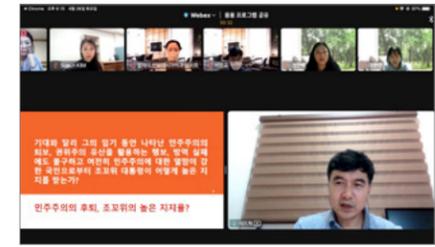
**세계태권도연맹 중앙일보·KOTRA 공동 주최 '제2회 한반도-북방 문화전략 포럼'**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5월 25일(수) 세계태권도연맹, 중앙일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제2회 한반도-북방 문화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제1라운드테이블 외교 패널에서는 정기웅 HK+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의 외교사절이 한국과의 관계 증진과 협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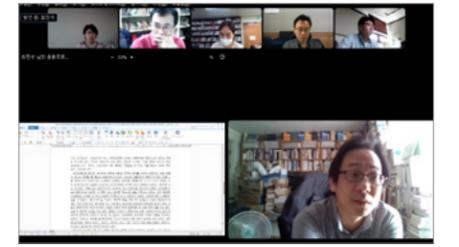
**동남아연구소**

**4월 정기 독회**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4월 26일(화) 동남아연구소 4월 정기 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독회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이지혁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을 통해 살펴본 인도네시아 정치 변동: 민주주의 틀에 담긴 권위주의 유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 유산에 대한 자국 내 여론 및 조코위 대통령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연구소**

**184차 콜로кви엄**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 HK+연구사업단은 4월 26일(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러시아 인문공간의 재인식: 러시아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러시아'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184차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кви엄 연사인 최진석 서울대 인문사회학술교수는 '러시아 근대 문화지성사 논쟁: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 혹은 러시아의 자기정체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콜로кви엄에는 연구자 20명 이상이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제5회 신북방정책포럼**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4월 27일(수) 제5회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양자산업협력사업 중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열린 여섯 번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과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해 유라시아 전문가 4명이 발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제12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5월 20일(금)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2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러시아어 학습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돼온 연례행사다. 결승 토론 주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여행', '탐험'으로 학생들은 주최 측이 마련한 관련 주제문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온라인상에서 피력했다.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서종석)는 5월 13일(금)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온라인(Webex)으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는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언어와 문화'라는 주제로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조장희 석좌교수와 태국 Mahidol University의 이성하 석좌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아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고, 나아가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을 했다.

**제4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3월 25일(금) 제4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4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해 해외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총 23편의 논문이 접수돼 최종 6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2014년 인도 총선에서 기타후진계급의 투표형태 분석-계급투표와 민족투표를 중심으로'가 차지했다.



**언어연구소**

**2022년 상반기 정기 콜로퀴엄**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서종석)는 4월 7일(목) 2022년 상반기 정기 콜로퀴엄을 온라인(Webex)으로 개최했다. 콜로퀴엄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가 '단어 의미들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일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대학 전·현직 교수와 학생,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참석해 의미 있는 결합에서 관련 있는 어휘가 결합하는 과정을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통해 밝히는 연구도 발표했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40회 콜로퀴엄**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2월 21(월) '서발턴/서발터니티 재고: 스피박의 '말할 수 없는'에 주목하여'라는 주제로 제40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우리 대학 김경옥 특임강의교수는 '서발턴/서발터니티란(Subaltern/Subalternity)?', '서발턴연구사', '서발턴/서발터니티 재고의 필요성', '일본사회의 서발턴연구', '현대 일본의 서발턴연구' 다섯 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5월 3일(화) 선문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이거룡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허황옥(許黃玉)과 파사석탑, 남릉정문(納陵正門) 신어상(神魚像)과 아요디아(Ayodhya) 쌍어문(雙魚紋), 허황옥루트 재검토, 한국 불교의 해양 전파 가능성과 가야 불교, 고대 가락국(駕洛國)과 따밀(Tamil) 왕국에서 물고기 숭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뤘다.



**장모네 EU센터**

**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5월 20일(금)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연구원(원장 한인택)과 공동으로 '신정부의 외교와 유럽: 협력의 모색과 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 정책 기조 발제에 이어 임수석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 대사가 한-EU 관계, 이무성 명지대 정외과 교수가 한반도, 강유덕 IT학부 교수가 경제통상, 제주평화연구원 유기는 박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발표했다.



**중동연구소**

**'중동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투자환경' 설명회**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은 3월 25일(금)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분과에서는 Eisa Alsamahi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공관 차석과 Abdullah Al Anezi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경제 및 문화 책임관이 각각 자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투자 환경을 발표했다. 2분과에서는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팀장 외 여러 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전문가 초청 월요 세미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4월 11일(월)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제1세미나실에서 쿠바 국제정책연구원 아시아/오세아니아 연구팀장 루비스 레이 곤살레스 사에스 박사를 초청해 '변화하는 쿠바의 현재 상황, 전망,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월요 세미나를 개최했다. 곤살레스 사에스 박사는 변화하고 있는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쿠바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도전 과제를 설명했다.



**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워크숍**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4월 15일(금) 제주평화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국내외 생태환경 및 평화 학술연구의 동향 점검'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생태 환경과 평화 연구에 관한 융복합 학술 연구의 현 상황과 동향을 검토하고, 생태 환경과 평화에 관한 학제간 연구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EU연구소**

**'제2회 HUFS-EU Youth Forum'**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4월 22일(금)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HUFS-EU YOUTH Forum'을 개최했다.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의 EU연구소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15명의 학부생과 4명의 대학원생이 '유럽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열린 토론을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EU연구소 김봉철 소장(국제학부)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의 장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22 제1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교실'**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종석 HK교수)는 4월 15일(금) 'OTT 드라마의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제1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교실을 개최했다. 정재형 교수(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한국영상문화학회 회장)는 강연을 통해 전통적인 드라마, 영화에서부터 최근 OTT 드라마의 부상까지 비교적인 관점을 통해 주제, 형식, 매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OTT 드라마의 발전과 영화 산업의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HUFS Academies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등 공동

**‘타부키 다시 읽기(Rileggere Tabucchi): 타부키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행사**

우리 대학은 4월 7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이탈리아 연구 센터, 카몽이스 포르투갈어 센터, EU연구센터, 안토니오 타부키 협회와 공동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현대 문학 작가 안토니오 타부키의 서거 10주기 기념 행사 ‘타부키 다시 읽기(Rileggere Tabucchi)’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융합인재대학

**‘2022 Ingenium-K Project’ 릴레이 특강**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은 4월 13일(수) ‘21세기 한국외교와 외교관’이라는 주제로 융합인재대학 ‘2022 Ingenium-K Project, 미래를 만드는 특강’의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동·아프리카연구부 교수는 국립외교원 소개,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 외교관의 구체적인 역할, 외교관이 되는 방법,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주제로 국립외교원과 한국 외교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제공했다.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주임교수 홍완석)는 4월 15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이 후원하는 제7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자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제1강 ‘신북방정책의 현재와 미래’에서 신(新)북방정책의 의의, 주요 성과, 현안을 소개했고, 제2강 ‘북러관계의 현재와 미래’에서 북러 관계를 개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중동연구소 공동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페르시아어·이란학과(학과장 유달승)는 4월 28일(목)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와 공동으로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에 초청된 Ali Vaez 팀장은 국제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Crisis Group(국제위기관리그룹)’ 소속 이란 전문가로, ‘The source of Iran’s conduct’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란의 정치 권력 구조와 현 국제 정세 속에서 진행되는 이란 핵협정 복원 협상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HUFS Professors

교수 출간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3월 4일(금) 한국경제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1978년 학회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1년이다. 안수현 교수는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기업과 경제, 금융 관련 법령 전반의 혁신적인 체계와 내용 정비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법학회가 여기에 중요한 기여를 하도록 학회 회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영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신임 공동대표 선출**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는 3월 24일(목) 2022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채영길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학부 편집이사,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의 사회적 책임위원회’ 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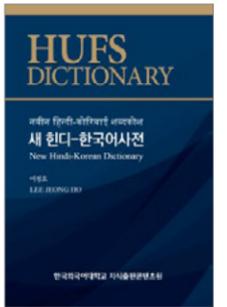


**안미경 외국문학연구소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우리 대학 외국문학연구소 안미경 교수(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교수)는 홍콩중문대학교의 Foong Ha Yap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 저명 학술지(A&HCI) 『Lingua』에 논문을 게재했다. 안미경 교수의 논문은 한국어 명사화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공식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 한국 문화의 고유한 현상이 언어 사용자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특히 한국의 체면 문화와 한국어 완화 표현 발달과의 상관 관계가 어떠한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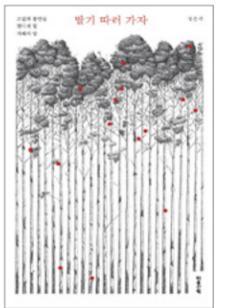
**이정호 인도어과 명예교수, ‘새 힌다-한국어사전’ 출간**

우리 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이정호 명예교수가 강단과 연구실에서 힌디어문학 교육과 인도학 연구에 헌신하며 지난 5년간 준비한 ‘새 힌다-한국어사전’을 출간했다. 이 사전은 국내 최초 힌다-한국어 대사전으로, 우리 대학 인도어과가 개설된지 50년 만에 이룬 큰 업적이다. 수록 표제어만 6만에 이르고 2,700쪽 분량의 대사전으로, 각 표제어의 정확한 발음과 다양한 예문, 속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수록해 각 표제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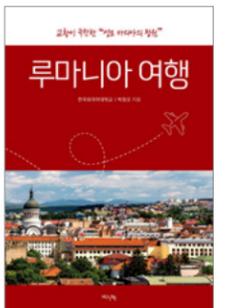
**정은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딸기 따라 가자’ 출간**

우리 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정은귀 교수가 지난 4월 산문집 『딸기 따라 가자(마음산책)』를 출간했다. 2017년 출간된 첫 산문집 『바람이 부는 시간』에 이은 두 번째 산문집이다. 신문 칼럼 등을 통해 평소 시에 관한 글을 나누며 공감의 영역을 확장해온 정은귀 교수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쓴 글이 실렸다. 특히 미국 원주민들의 지혜의 말을 통해 시절의 낙심과 우울을 떨치고 일어나 일상의 소중함에 눈을 뜨자고 안내한다.



**박정오 루마니아어과 교수, ‘교황이 극찬한 ‘성모 마리아의 정원’, 루마니아 여행’ 출간**

우리 대학 루마니아어과 박정오 교수가 2월 신간 『교황이 극찬한 ‘성모 마리아의 정원’, 루마니아 여행』을 출판했다. 유럽 최고의 생물지리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이 공인한 11개의 생물지리적 중요지역 중 5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박정오 교수는 이번 신간을 통해 루마니아 기본 정보와 주요 도시, 자연 환경, 음식 문화 등을 중심으로 루마니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종교와 신화, 역사 등 루마니아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



## 외국어연수평가원

### 2022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2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1 ~ 12.16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6.27 ~ 07.22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8.30 ~ 11.22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8.20 ~ 12.03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인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 7,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 서울평생교육원

####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번역 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개설해 현재까지 약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FLEX센터

####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FLEX센터는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20.3.26)'을 근거로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과 연계해 특수외국어능력평가를 개발했다. 이 시험은 15개 특수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어학 평가로서 평가인증 체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4일(토), 2021년 5월 8일(토) 시행됐다. 2022년 시험은 5월 7일(토) 시행됐다.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응시자는 국비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분야 지원시 해당 성적을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TESOL전문교육원

### 2022학년도 전기(39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및 수료

TESOL전문교육원은 6월 22일(수)부터 7월 2일(토)까지 총 2주간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한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1학기 동안 TESOL 연구 과정을 수강한 학생 27명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문의** 02-2173-3504

### 2022학년도 후기(40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5월 2일(월)부터 1주일간 2022학년도 후기(40기) 일반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5월 15일(일)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을 통과한 10여 명의 지원자는 오는 9월 5일(월) 개강 예정인 후기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후기(40기) 특별전형 모집은 7월 4일(월)부터 11일(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3504

### 2022학년도 후기(40기) 등록자 대상 Pre-course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27일(토) 2022학년도 후기(40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Pre-course(프리코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리코스는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임 교수님으로부터 샘플 강의를 수강하며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해도를 높이고, 기수료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TESOL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 연구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02-2173-3504

## 한국문화교육원

#### 불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불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

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 불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외대 학부생(멘토)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멘티) 대상 멘토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전도) 기회를 제공해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양성하고,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에게는 캠퍼스 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외대 학부 입학을 유도하고자 한다. 2021학년도 불학기부터 시작된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부생 및 외국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의** 02-2173-2262

##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 2022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 실무역량강화과정(2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2월 21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4주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2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예비 주재원으로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삼성그룹 임직원 20명(베트남어 14명, 독일어 5명, 스페인어 1명)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집중 교육과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과정 종료시 소정의 어학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글로벌 각지로 파견돼 주재 생활을 한다.

**문의** 031-330-4808

### 202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 GLH(Gentium for LH)과정 입소

국제사회교육원은 3월 7일(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2명을 대상으로 '2022년 GLH과정'의 입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과 지역 이해, 글로벌 리더십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융합 교육을 진행한다. 3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연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소정의 어학 능력 평가 및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교육생들의 성

과를 확인하면서 종료될 예정이다.

**문의** 031-330-4808

### 2022년 1학기 경기 품의 대학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4월 13일(수)부터 '2022년 1학기 경기품의대학' 수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권내 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신장 및 진로/적성 발굴 지원 교육과정으로, 수요일 야간 총 8회 수업으로 8주간 수업이 진행됐다. 고등학생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7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6월 22일(수)까지 1학기 과정이 진행됐다.

**문의** 031-330-4810

### 2022년 삼성외국어생활관

#### 글로벌인력양성과정(1차) 입소

국제사회교육원은 5월 9일(월) 삼성그룹 임직원 5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1차)' 입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삼성그룹 임직원 5명(베트남어 4명, 포르투갈어 1명)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집중 교육과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현업으로 복귀해 업무를 지속한다.

**문의** 031-330-4808

## 통번역센터

####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수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일본 명문 감상(개정판)

「일본 명문 감상(개정판)」은 일본어 학습자가 초급 단계의 어법과 어휘 문형을 이해한 후 중급과 고급 수준의 문장을 접함으로써 근현대의 난해한 문장을 대하더라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일본의 수필, 평론,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문학과 문화 관련 내용의 문장을 학습할 수 있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어 실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재편찬 위원회  
140면 / 크라운판 / 15,000원



뉴 에센스 영문법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영문법 가운데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진수(essence)를 설명하는 책이다. 13개의 Unit 각각 사회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친근한 topic 아래 관련 예문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문법을 공부하면 문장을 더 쉽게 익힐 수 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중심으로 문법을 설명한 점이 다른 문법책과 차별화된다. 시험을 위한 영문법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영문법을 담았다.

성은경 / 336면 / 46배판 / 25,000원

고영훈 교수의 인도네시아어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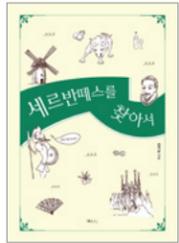
「고영훈 교수의 인도네시아어 첫걸음」은 인도네시아어 기초 과정을 학습하는 사람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인도네시아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지만,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일상적인 의사 소통의 단계를 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보면 좋을 듯하다. 이 책을 통해 인도네시아어 어휘를 공부하고 기본 텍스트를 익히며, 그에 필요한 문법 사항을 학습할 수 있게 꾸몄다. 인도네시아어 학습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다루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고영훈 / 296면 / 46배판 / 23,000원

독일어 읽기 1(개정판)

이 책에는 뉴스와 언론 보도, 강연문, 경제 및 철학 텍스트, 동화와 일화, 영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종류의 독일어 글이 있다. 이 책에서는 단어는 텍스트 문맥 안에서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단어를 외우게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학습단어 Lernvokabeln'은 밑줄을 쳐서 강조했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단어는 '용어목록 Glossar'에서 의미와 용례를 설명했다. 또한 여러 텍스트를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 있게 해독할 수 있게 돕는다.

장은수, Hans-Alexander Knieder, 김형래, 류용상, Kai Köhler, 배기정, Michael Weitz, 서유정 / 224면 / 46배판 / 21,000원



세르반테스를 찾아서

「돈키호테」의 서문에서 우물쭈물하는 세르반테스를 만난다. 「모범소설집」 서문에서의 세르반테스는 위험할 정도로 자신에 차 있다. 초상화를 거론하고, 자신이 스페인어로 소설을 쓴 최초의 작가라고 거침없이 주장한다. 하우레기의 초상화에서 53살의 미겔은 실재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꾸며낸 인물 같다. 눈썹은 지나치게 길고 길며, 두 눈은 뿔가에 사로잡혀 있다. 양 볼은 움푹 들어가 있고, 콧수염과 턱수염은 우스꽝스럽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가깝다.

전기순 / 136면 / 46배판 / 13,000원

스페인 언어문화사 I

스페인어의 나이는 몇 살쯤일까?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글은 또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걸까?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언제부터 또 무슨 근거로 라틴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라틴어에서 유래하지 않은 어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동음이의어나 이형동어어 관계에 있는 어휘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스페인 언어문화사 I」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 즉 스페인어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룬다.

이강국 / 486면 / 신국판 / 29,000원

문학윤리학비평

문학윤리학비평은 윤리의 시각에서 문학을 독해, 분석, 해석하는 비평방법이다. 문학 텍스트를 주요 비평 대상으로 삼아 윤리의 시각에서 텍스트에 묘사된 서로 다른 삶의 현상, 즉 인간과 자아, 인간과 타자,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등 각각의 윤리 선택 모델을 해부한다. 또한 윤리 선택의 동기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선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덕 영감을 드러내고, 효과적인 도덕의 모범을 제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경험과 교훈을 제공한다.

니에전자오(聶珍鈞) / 김순진, 윤석민, 임대근 옮김 / 618면 / 신국판 / 27,000원

현대 중남미 경제

경제 영역에서 중남미의 좌절된 기대와 실패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재기 넘치는 국민을 보유한 중남미가 왜 북쪽 이웃 국가보다 그토록 가난하며, 중남미의 어느 국가도 서구 유럽인이 누리는 생활 수준과 확고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중남미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조명한다. 또한 역내의 정책 입안자에 선례를 제공할 수 있는 중남미의 인상적이지만 단기간에 끝났던 몇몇 성공 스토리를 제시한다.

Beatriz Armendáriz, Felipe Larraín B / 문남권, 우재량 옮김 / 428면 / 크라운판 / 27,000원

# 난 요즘 이렇게 배워

메타버스 입장하듯 어디서나  
음악 들듯 내 맘대로  
미드 보듯 편하게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중



## 한국외대 동문·교직원(가족) 대상 장학 혜택

- 동문장학금 : 한국외대 학부 졸업자 및 2촌 이내 가족(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감면)
- 외대복지장학금 : 한국외대, 부속외고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자녀(전액 감면), 배우자(50% 감면)

# H U

## Alumni & Donation

HUFS Alumni  
HUFS Donation

# F S



HUFS Alumni



**김덕술 유니스토리아산운용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우리 대학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아산운용(주) 회장이 4월 1일(금)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정부 포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김 회장이 ㈜삼해상사를 이끌며 김스넥 개발 등으로 2018년 7천만불의 김 수출을 달성하고, 2009년에는 전국에 산재한 3개의 김 관련 단체를 독려해 (사)한국김산업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34년간 수산물 수출 확대와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수출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식품 분야 중 수출 1위 품목이었을 만큼, 김 회장이 그동안 국가 경제와 무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김 회장은 2017~2021년 우리 대학 일본어과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모교 사랑과 동문 단합을 위해 헌신했다. 지금은 유니스토리아산운용(주)를 창업해 이끌고 있다.



**이지영 동문, 한국P&G 신입 대표로 선임**

우리 대학 이지영(프랑스어 96) 동문이 6월 1일(수) 한국P&G 대표로 선임됐다. 1978년생인 이 대표는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여성 CEO' 등 여러 수식어와 함께 한국P&G의 최연소 대표가 됐다. 2000년 한국P&G에 입사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브랜드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는 등 20년 이상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경험을 쌓았다. 이후 패브릭 홈케어 사업부의 리더로 재직하면서 외대인 특유의 글로벌 감각과 경영의 통찰을 접목시켜 '다우니' 섬유유연제를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대표 선임 전까지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지냈으며, 환경지속가능성 TF팀을 이끌었다. 지속가능한 혁신, 글로벌 제품의 로컬화(GloCal),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한국P&G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과·단위 동문회 활동 재개**

코로나19로 2년 넘게 얼어붙었던 외부 활동이나 모임 등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 대학 학과 및 단위 동문회에서도 소모임이나 산행 등 야외 모임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는 모습이다. 4월 30일(토)에는 아랍어과 동문산악회가 청계산 등반 모임을 가져 6명이 참석했다. 5월 15일(일)에는 일본어과 동문산악회 모임이 있었고, 5월 28일(토)에는 국제무역인클럽 ITC가 217회 정기산행을 청계산에서 가졌다. 많은 동문이 오랜만에 산과 자연을 즐기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회를 나누고 건강을 다지면서 동문 모임의 새 숨을 불어넣고 있다. 앞으로 많은 학과 및 단위 동문회에서 산행 등 각종 모임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계획, 친목과 교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김귀옥(프랑스어 86)**  
셀라비  
(문학바탕)



**이현정(영어교육 95, 법전원 07)**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Springer)



**조덕연(경영 07)·석원(인도어 98) 외**  
달리다 보면  
(꿈꾸는인생)



**김창도(행정(박) 99, 공저)**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길  
(정음출판)



**이혜승(통번역대학원 한노(박) 00) 역**  
나보코프의 러시아문학강의  
(을유문화사)



**김상중(스페인어통번역 03)**  
스퀘어 홍보법  
(파지트)



**장소미(프랑스어 06)**  
초등 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  
(빅피시)



**홍재훈(국제지역 09)**  
Road Master: Crossing the Desert of Misconception and Arriving the Oasis of Understanding  
(Motive)



**김석일(국제금융(MBA) 14, 21기)**  
주식투자자와 국제투자자본  
(지식나무)



**한주이(광고·PR·브랜드 14)**  
홍철귀 탐정클럽①  
(위즈덤하우스)



**Lovhee**  
1인가구 요리예제시  
(부크크)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 장학금 100만 달러 기탁**

이덕선(독일어 58)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이 5월 9일(월) 장학금 100만 달러를 기탁했다. 인류에 공헌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염원하며 꾸준히 보내온 성원에 이어 다시 한번 모교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로써 이 이사장의 기부금은 총 40억원이 됐다. 이 이사장은 이번에 통 큰 기부를 하게 된 배경으로 통합된 '하나의 외대'로 나아가기 위한 학교의 구조 조정 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모교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을 보탠 것이라 전했다. 세계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교에서 체득한 글로벌 마인드와 기업이 정신이라고 밝힌 이 이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모교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영우 ㈜한길통상 회장,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1억원 기탁**

이영우(말레이인도네시아어 68) ㈜한길통상 회장이 5월 24일(화)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으로 2017년부터 '한길 장학금'을 만들어 꾸준히 기탁해오고 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정이 큰 후배들을 보면 과거 어렵게 공부한 자신이 생각한다는 이 회장은 항학열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외대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 발전기금이 작은 보탬이 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정운 총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 마인어과 고영훈·서명교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황한주 레바인 그룹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및 강의실 헌정식**

황한주(스페인어 83) 레바인 그룹 회장이 성공의 초석이 되어준 모교에 대해 감사와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하였다. 이에 학교는 감사의 뜻으로 4월 19일(화) 우리 대학 국제관 606호 강의실을 헌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 회장의 아내인 강희진 여사,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 외 장봉의 미래위원회 위원장, 통번역대학원 임향옥 원장, 박미정 부원장, 한원덕 한서과 교수와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외부에서는 정명호(스페인어 85) ㈜해피존F&B 대표이사, 한상만(법학 86) Hans 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참석했고, 코스타리카에서의 각별한 인연으로 前 WBA 세계챔피언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장과 아내인 가수 옥희 씨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미선 서울여대 명예교수, '문외장학금' 기탁**

문미선(독일어교육 72)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3월 11일(금)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문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모교 후배들의 미래 개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더 많은 동문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장학금 기탁 소회를 밝혔다. 기탁식 행사에는 백영현(독일어교육 76) 독일어교육과 동문회 고문, 김종윤(독일어교육 90) 독일어교육과 동문회장이 참석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박정운 총장, 조국현(독일어 82) 교수(독교과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현마육영재단 이성희(정치외교 64) 이사장은 자랑스러운 외대 동문이자 성공한 기업인이다. 경영학부 초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HUFS 최우수 교수 강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현장감 있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선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열의와 모교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다. 이 이사장은 현마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후배들이 국내를 대표해 세계에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열정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이 이사장과 현마 장학생 1기 우지원 동문을 만나 장학금의 의미를 들어봤다.

**<기회 의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언제나 외대 가족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기부로서 실천해주시는 사랑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의 후배사랑의 마음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외대 가족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소중한 장학금으로 이어진 두 마음이 지면을 통해 조금 더 멀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부자 –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정치외교 64**

**• 현마육영재단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수십 년간 이어오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 선발 요건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정했고 선발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장학생이 있습니까?**

지나온 10여 년 동안 졸업 후 각계각종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사회의 역군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현마장학생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큰 보람입니다. 이들 모두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재단의 자산규모를 현재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충해 계층의 다양화, 목적사업의 다변화 등으로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기부자로서 장학금 수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기부자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수혜 장학생들이 재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나아가 '현마' 정신을 이어받아 언젠가 그들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주는 넉넉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어떤 의미이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세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65년 6.3 민주화 운동 주동자로 제적당한 후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초빙교수로 10여 년 동안 봉직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교입니다. 후배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런 도전정신이 약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숭선 수범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장학생 – 우지원 영어통번역 10**

**•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과 포럼 및 세미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주로 정부간 이뤄지는 전통적인 외교를 담당한다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공공외교를 전담합니다. 공공외교를 통해 해외에 한국을 '알고, 친해지고, 배우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장학생 선발 당시 소회를 들려주세요.**

김해가 고향인 저는 서울에서의 학비와 생활비 충당이 쉽지 않았습니.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부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2학년에 올라갈 무렵 막막해하던 차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 '현마장학생 1기'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당시 이사장님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지닌 점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마장학생은 제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고, 꿈을 위해 투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공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실무 경험과 학계 지식을 두루 갖춘 문화 외교 전문가가 돼 국정 운영에 참여하거나 후학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 기부자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사장님은 제가 힘든 시기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장학생으로 맺게 된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귀중한 삶의 가르침을 주시는 '멘토'가 돼주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장학생에게 항상 진심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도 언젠가 장학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현마육영재단 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제가 쌓은 부와 영향력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이 모든 시작에는 현마육영재단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Donation News

## HUFS Donation

2022. 03. 01. ~ 2022. 05. 31.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강동이	12학년	15,000
강동희	17학년	40,000
강명남	93학년	40,000
강지혜	04학년	30,000
권태수	07학년	40,000
고해섭	11학년	120,000
공병훈	11학년	120,000
권태석	77학년	40,000
구민구	02학년	30,000
권기대	94학년	40,000
권성욱	79학년	40,000
권순한	63학년	20,000,000
권영아	91학년	40,000
권준호	93학년	120,000
권학수	94학년	150,000
김경만	82학년	240,000
김경민	01학년	120,000
김기민	90학년	40,000
김대윤	99학년	40,000
김대호	91학년	80,000
김대희	11학년	120,000
김미경	84학년	200,000
김범수	92학년	40,000
김병수	03학년	10,000
김병진	79학년	60,000
김상원	86학년	40,000
김신주	74학년	80,000
김성현	89학년	10,000,000
김수희	65학년	40,000
김승수	87학년	90,000
김승영	86학년	400,000
김용빈	89학년	30,000
김용정	95학년	40,000
김용진	89학년	120,000
김용현	89학년	80,000
김유정	03학년	40,000
김유현	10학년	120,000
김은정	94학년	30,000
김은정	93학년	40,000
김은지	04학년	40,000
김이성	16학년	40,000
김자영	11학년	120,000
김정기	88학년	40,000
김종윤	90학년	40,000
김준영	93학년	50,000
김지숙	15학년	30,000
김지은	04학년	30,000
김지환	04학년	40,000
김창라	03학년	40,000
김홍대	80학년	500,000
나도연	83학년	40,000
나건애	08학년	40,000
노건업	99학년	80,000
노일현	09학년	50,000
노지영	91학년	40,000
류동호	89학년	40,000
류재욱	95학년	40,000
류제봉	57학년	30,000
문관식	08학년	90,000
문미선	72학년	10,000,000
문현성	98학년	40,000
민희창	01학년	40,000
박경식	87학년	40,000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박관수	84학년	15,000,000
박남호	92학년	30,000
박대연	07학년	120,000
박상준	93학년	20,000
박상종	81학년	40,000
박순원	00학년	60,000
박원복	79학년	90,000
박재진	74학년	4,631,000
박재호	86학년	40,000
박재홍	14학년	40,000
박지영	99학년	40,000
백석주	90학년	80,000
백은경	02학년	40,000
부중환	71학년	40,000
상연진	02학년	40,000
사기원	81학년	40,000
서우경	92학년	120,000
서장규	82학년	1,000,000
손세준	05학년	40,000
송대현	86학년	80,000
송배호	77학년	90,000
송진호	95학년	40,000
송철준	74학년	40,000
신민하	93학년	30,000
신아람	11학년	30,000
신용규	19학년	200,000
신윤경	89학년	40,000
신윤철	04학년	40,000
신안선	11학년	120,000
신장현	02학년	30,000
신현철	08학년	40,000
심찬	03학년	60,000
안상범	98학년	30,000
양연우	97학년	60,000
염용식	83학년	150,000
염홍길	02학년	40,000
오성식	79학년	200,000
오성진	04학년	40,000
오윤	98학년	30,000
오정훈	06학년	120,000
오창엽	85학년	40,000
우재만	71학년	80,000
유근혁	11학년	120,000
유시영	84학년	30,000
유영미	82학년	90,000
유재형	96학년	40,000
유정은	05학년	30,000
윤상기	73학년	1,000,000
윤상수	84학년	60,000
이덕선	58학년	243,752,949
이동만	83학년	75,000
이동원	01학년	40,000
이보훈	86학년	10,000
이상방	67학년	300,000
이상석	74학년	1,000,000
이상식	79학년	90,000
이상배	98학년	40,000
이수경	82학년	5,000
이수연	06학년	40,000
이승률	77학년	30,000
이승원	90학년	40,000
이승조	78학년	40,000
이영도	81학년	40,000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이영우	68학년	55,000,000
이영화	68학년	30,000
이육성	76학년	80,000
이용권	80학년	40,000
이용출	82학년	30,000
이은순	73학년	40,000
이장일	88학년	30,000
이재용	01학년	40,000
이재호	04학년	20,000
이재홍	88학년	90,000
이종섭	80학년	30,000
이준희	86학년	200,000
이진희	76학년	40,000
이하나	02학년	40,000
이현식	11학년	120,000
이혜영	91학년	40,000
이효경	91학년	40,000
이호용	83학년	30,000
이희성	89학년	30,000
이희민	06학년	20,000
임경자	61학년	3,000,000
임동우	61학년	30,000
임은숙	83학년	80,000
임재복	82학년	30,000
임홍상	77학년	40,000
장윤호	80학년	40,000
장일범	87학년	40,000
전별	11학년	90,000
전성철	76학년	150,000
정순자	91학년	30,000
정승화	99학년	30,000
정언용	91학년	40,000
정연우	77학년	40,000
정영조	74학년	150,000
정재민	81학년	200,000
정지훈	98학년	40,000
정혜린	06학년	80,000
정혜정	17학년	200,000
정휘영	98학년	40,000
정희용	10학년	40,000
조규태	72학년	200,000
조기석	02학년	240,000
조통식	69학년	40,000
조성욱	87학년	200,000
조수연	85학년	40,000
조용배	85학년	30,000
조원규	92학년	40,000
조재민	01학년	30,000
전부기	97학년	40,000
최경훈	84학년	30,000
최동규	77학년	40,000
최백범	05학년	40,000
최병천	81학년	30,000
최영규	84학년	40,000
최옥근	68학년	2,000,000
최은정	92학년	300,000
최창호	06학년	40,000
최재선	06학년	40,000
최정화	84학년	120,000
최창수	89학년	120,000
최태원	90학년	90,000
최현규	83학년	120,000
추기영	04학년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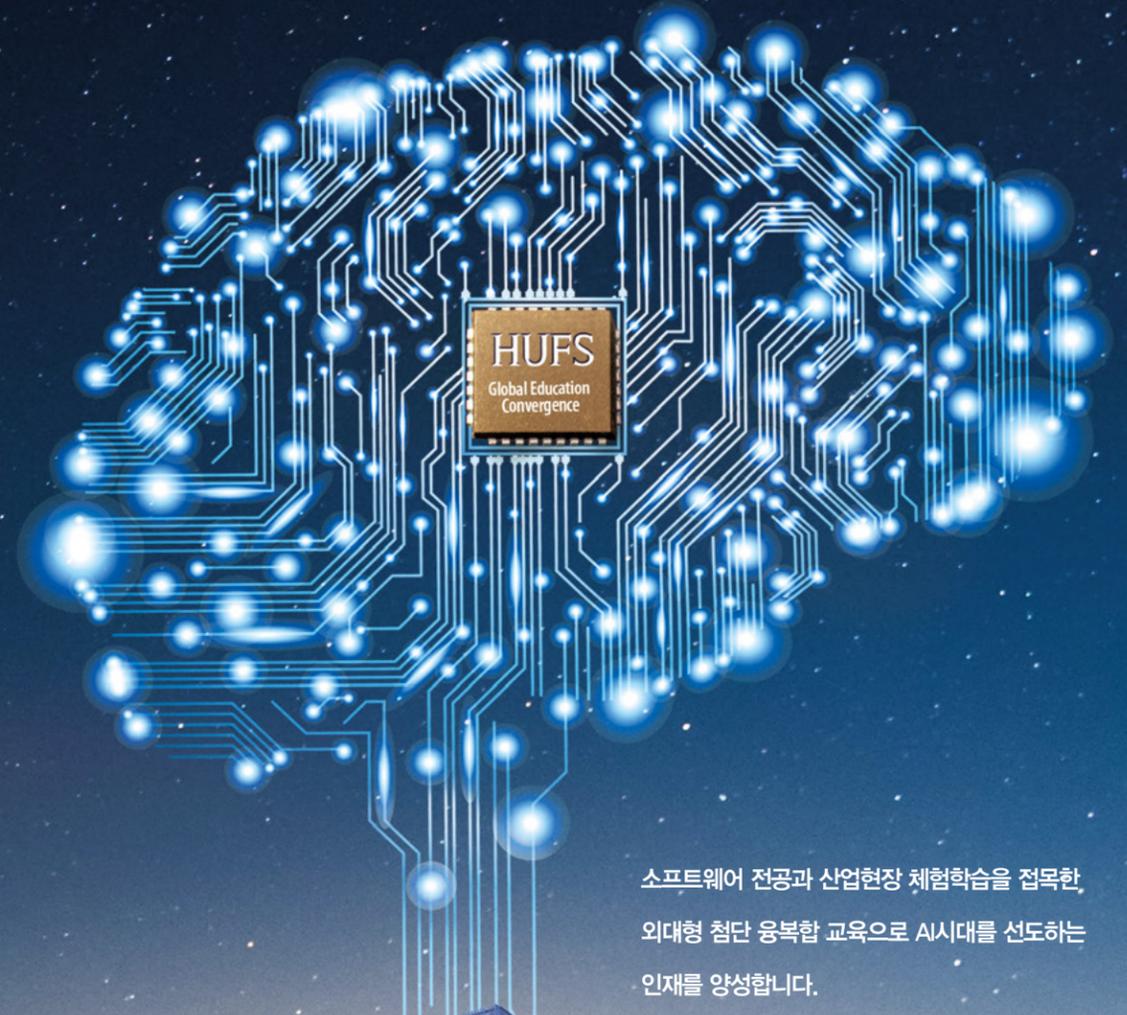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하상원	74학년	200,000
하석근	95학년	40,000
하정수	81학년	40,000
한세진	89학년	500,000
한의섭	05학년	120,000
함영준	81학년	40,000
허완	78학년	120,000
허욱	94학년	30,000
홍성재	14학년	40,000
홍영표	81학년	10,150,000
홍환기	94학년	30,000
홍의표	00학년	40,000
홍진표	74학년	2,000,000
홍현주	82학년	40,000
황송이	05학년	40,000
황윤정	04학년	40,000
황인자	74학년	40,000
황한주	83학년	100,000,000
Hanafy Shim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150,000
가정훈	외대교수	2,000,000
고태진	외대교수	30,0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례	외대교수	80,000
권경애	외대교수	500,000
권기수	외대교수	120,000
권영우	외대교수	10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인정	외대교수	80,000
김봉철	외대교수	1,398,1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소환	외대교수	200,000
김원영	외대교수	150,000
김현호	외대교수	120,000
김주경	외대교수	542,19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80,000
김찬환	외대교수	40,000
김태성	외대교수	30,000
김한식	외대교수	30,000
김현태	외대교수	120,000
김혜진	외대교수	240,000
노명환	명예교수	305,000
명희준	외대교수	20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400,000
박미정	외대교수	50,000
박삼미	외대교수	2,060,000
박정운	외대교수	3,420,000
박중찬	외대교수	150,000
박치환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50,000
송연석	외대교수	50,000
송준서	외대교수	40,000
신근혜	외대교수	484,074
신정아	외대교수	240,000
안인경	외대교수	11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윤대원	외대교수	400,000
왕석동	외대교수	6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윤석만	외대교수	10,000,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300,000
윤은경	외대교수	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승용	외대교수	400,000
이유나	외대교수	1,500,000
이윤석	외대교수	400,000
이인성	외대교수	30,000
이재욱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외대교수	50,000
이지은	외대교수	160,000
이지아	외대교수	1,200,000
이창현	외대교수	5,0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준호	외대교수	4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4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공근사랑부	외대교수	100,000
장병익	외대교수	300,000
장은영	외대교수	60,000
정철자	외대교수	40,000
정혜연	외대교수	50,000
제성훈	외대교수	40,000
조희문	외대교수	450,000
최영수(MS)	외대교수	200,000
최요섭	외대교수	120,000
최종찬	외대교수	400,000
한원덕	외대교수	5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완석	외대교수	10,000,000
홍종영	외대교수	40,000
황상우	외대교수	40,000
황재호	외대교수	60,000
황지연	외대교수	50,000
김인철	명예교수	20,000,000
장심	명예교수	40,000
최재철	명예교수	40,000
황성돈	명예교수	10,000,000
유정화	퇴직교원	90,000
강미리	외대직원	40,000
김석중	외대직원	70,000
김원숙	외대직원	40,000
(재)동원영재단(동원그룹)	기타(기업)	149,586,463
김해정	외대직원	30,000
나영규	외대직원	60,000
(주)에스영	기타(기업)	80,000
(주)이준시스템	기타(기업)	12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메가스터디교육(주)	기타(기업)	272,120,600
윤병호	외대직원	300,000
최영호	외대직원	150,000
최완식	외대직원	600,000
홍순혁	외대직원	30,000
황순규	외대직원	400,000
단창균	학부모	200,000
유철자	학부모	60,000
김상수	기타(개인)	1,000,000

성명	구분	약정합계(원)
백창기	기타(개인)	5,000,000
송위지	기타(개인)	500,000
윤영희	기타(개인)	20,000,000
형길환	기타(개인)	150,000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5,000,000
119 ROTC 50기(서울)	동문단체	1,000,000
ITC(국제무역인클럽)	동문단체	3,000,000
일본어과동아리 부라부라 OB	동문단체	4,000,000
재동경동문회	동문단체	3,360,50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3,255,000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5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543,000
영미문학번역 전공교수 일동	교내단체	3,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누리넷)	교내단체	2,580,000
외대축구부	교내단체	500,000
한국외대 여교수회(누리회)	교내단체	1,000,000
광주회관	외대사랑후원업소	400,000
(재)동화산업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0
(재)상성광장학재단	기타(단체)	15,600,000
(재)제이씨현장학재단	기타(단체)	16,000,000
(재)협성문화재단	기타(단체)	7,721,000
KRX 국민행복재단	기타(단체)	2,000,000
강철은 장학재단	기타(단체)	6,127,500
공공사랑부	기타(단체)	3,855,5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10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역	기타(단체)	3,360,500
대한력학협회	기타(단체)	1,000,000
대드림교회	기타(단체)	1,000,0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13,442,000
마산소방서	기타(단체)	719,000
백미장학금	기타(단체)	2,000,000
산학협동재단	기타(단체)	3,360,500
성명보림협회	기타(단체)	5,000,000
성보장학회		



# Come to HUFS Meet the AI World



소프트웨어 전공과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접목한  
외대형 첨단 융복합 교육으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 준한 예우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 ● 세제혜택

####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중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